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열네 번째

Jeff Pippenger

2025-12-20

숫자 14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인가'라는 예언적 질문으로도 표현된다. 그 두 가지와 많은 다른 상징들로 제시된 역사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를 나타낸다. 그 기간에는 참된 늦은 비 기별과 많은 다른 거짓 늦은 비 기별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 참된 늦은 비 기별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줄거리는, '새 포도주'가 한 부류에게서는 끊어지고 다른 부류에게는 부어지는 요엘서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요엘서에는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대조가 있다. '비유'라는 단어의 어원은 '나란히 놓다'는 뜻이며, 본질적으로 두 부류의 대조를 포함한다. 우리는 앞서 요엘서의 '대조' 몇 가지를 다루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술 취한 자들이 쓰는 교만의 관이 영광의 관을 쓰는 자들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직 '기쁨의 상징'이 수치를 당함의 반대이자 그에 대응하는 것임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생각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주제 또한 요엘서에 나타나며, 처음이 마지막을 예시한다는 그 원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두 편의 설교로도 확인된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오전 9시(제삼시)에 일어나며, 3장은 제구시(오후 3시), 곧 저녁 제사의 시간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는 한 사적 주택의 다락방에서였지만, 3장에서의 그의 설교는 성전에서 주어진다. 두 모임은 모두 회개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같은 메시지가 두 지리적 장소에서 선포되어, 뜰과 성전으로 나뉘는 오순절 메시지 안의 이중성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뜰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제외하라는 말을 듣는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의 뜰은 내버려 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이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1, 2.

그러므로 두 설교의 반복과 그 설교들이 전해진 장소의 구분은, 요엘서의 늦은 비가 향하는 두 부류의 청중을 가리킨다. 한 부류는 성전 밖의 이방인이며, 다른 한 부류는 성전 안의 유대인들이다. 살아 있는 자들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고, 9/11부터 주일법까지는 성전이 심판을 받으며, 주일법부터 인간의 은혜기간의 종결까지는 이방인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베드로가 요엘서에 제시되어 있다고 지목한 늦은 비 동안에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구분되어 나타난 뜰(이방인)과 성전(하나님의 교회)이 가리키는 바는,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구별이기도 하다. 이른 비는 9/11에 임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심판을 받는 동안

부어지고 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진다.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셨고, 첫째 달에 너희를 위하여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요엘 2:23.

지금의 요점은 기쁨과 부끄러움 사이의 예언적 구별을 규정하는 데 있지 않지만, 그
구절은 늦은 비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알려 준다. 늦은 비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예언적 기쁨을 낳는다. 한편, 이른 비에 이어지는 늦은
비라는 주제는, 한때 제쳐져 걸림돌이 되었으나 마침내 기이히 여김을 받은 그 돌의
비유이다. 궁극적으로 머릿돌이 되는 모퉁잇돌의 상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의
눈에 기이한 것이다.

그 놀라운 돌은 예언의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한다. 예언적 적용이라는 면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알파와 오메가께서 거듭 밝히셨으며, 그분은 곧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관해 계시된 바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어졌다. 1863년은 성경 예언의 완결석이며,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셋째 천사의
기간의 완결석이다. 1844년은 그 예언적 기간의 기초석이었고, 1863년은 그
완결석이었다. 1844년에서 1863년까지는 538년에서 1798년까지와 마찬가지로 확립된
예언적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것을 인류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전 글을 다음과 같은 대목으로 마무리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점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았다.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모세를 원망한
자들이 있었고, 그를 원망하는 자들도 있어 왔다. 증언, 제3권, 85쪽.

1863년에 제임스 화이트는 "어떤 점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역할을 했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기간은 홍해의 구원에서 첫 번째 가데스까지의 기간으로
예표되었다. 첫 번째 가데스는 알파이고 두 번째 가데스는 오메가로서 가데스로 이끄는
두 차례의 40년 기간을 이루며 둘 다 반역으로 끝났다.

예언의 영은 홍해 도하를 1844년의 대실망과 연결시킨다. 성경은 홍해 도하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며, 화이트 자매는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겪은 실망이 1844년의 대실망을
예표하고 있었다고 확인한다. 주님의 뜻은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지리적 표식은 여리고였다. 바로 그 여리고에서, 2025년
12월 둘째 주에, 고고학자들이 방금 고대 여리고를 발굴했는데, 당혹스럽게도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무너진 성벽들은 포위전 때 늘 그렇듯 안쪽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모두 바깥쪽으로 넘어져 있었다. 고대의 포위전에서는 성벽이 두들겨져 안쪽으로 밀려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여리고는 그렇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외쳤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평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에 백성은 각기 자기 앞에 곧장 나아가 성으로
올라가 그 성을 취하였다. 여호수아 6:20.

고고학자들은 음식이 담긴 항아리들도 발견했는데, 이는 성벽이 무너졌을 당시 사태가 장기 포위전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발견은 여리고 함락에 대한 성경 기록이 사람들이 언덕이나 경사로를 통해 여리고로 '올라가' 들어갔다고 묘사하는 이유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의문에도 답을 주었다. 이제 그들은 그 언덕 또는 경사가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알린 첫 번째 장애물은 영향력과 부의 도시 여리고였다. 여리고는 1863이며, 여리고는 주일법 시기의 예시일 뿐만 아니라 그 몰락과 재건과도 관련하여 성경 예언의 주제가 된다. 여리고에는 또한 그 자체의 구체적인 예언적 저주가 선포되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저주받은 도시를 재건하는 동안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가 그의 막내아들과 맏아들을 잃게 될 것임을 밝혔다. 한 아들은 기초를 놓을 때, 다른 아들은 성문을 세울 때 잃게 될 것이었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기록은 성경에 남아 있어 여리고를 확립된 성경적 상징으로 만든다.

그 역사적 몰락과 예언적 저주, 그리고 그 예언의 역사적 성취 속에서 우리는 1863년에 여리고에 대해 말하는 세 증인을 발견한다. 그 세 가지 증언은 모두 1863년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세 증인은 각자의 사십 년 기간 끝에서 예언적으로 서 있는 모세 세 사람처럼 함께 선다. 그 사십 년 기간들 가운데 하나는 밀러파의 역사와 분명히 일치하며, 이는 각 사십 년 기간의 끝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세 표상이 1863, 즉 셋째 천사의 역사와 일치함을 확증한다.

모세의 사십 년에 대한 그 세 가지 증거 중 두 가지는 가데스에서 끝나며, 세 번째 사십 년의 결말은 요단강이었고, 두 번째의 결말은 홍해였다. 첫 번째 사십 년의 결말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한 것이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이집트에서의 430년간의 속박에 관한 아브라함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집트 탈출을 묘사하고 있다.

모세의 세 번의 사십 년 시기는, 그 끝(머릿돌)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한 유형을 나타내며, 애굽의 속박 아래 포로 되었다가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예언의 성취였다.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예언된 구원자로서 모세 자신은, 그의 이름이 뜻하듯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지나게 했고, 이어 요단강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기슭에 이르게 했다. 모세 인생의 알파는 나일강의 물에서의 구원이었고, 오메가는 요단강의 물로 상징되는 구원이었다. 모세 인생의 알파는 그의 이름이 규정하는 그 경험으로 드러났고, 경건한 부모였던 그의 부모는 그 아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알았다. 이는 그가 사십 년 후 애굽 사람을 죽인 뒤 받게 될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였다. 아들의 사형 선고로부터 구원이 필요함을 알던 경건한 부모는 그를 위해 상자를 마련했고, 그 상자는 히브리 세계에서 애굽 세계로 건너갔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사십 년의 끝에 애굽 세계를 떠나 히브리 세계로 옮겨갔다.

모세의 물에서의 구원은 노아의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사백삼십 년 언약 예언에서 '구원자'로서 모세가 처음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역사의 반복이었고, 이로써 선택된 백성에 관한 아브라함의 언약 예언이 전 인류를 향한 언약의 약속과 결합된다. 이는 아기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로 옮겨지는 일에서 하나의 세례를 가리키는데, 죽음은 부모의 행위로 인정되었고, 장사는 물 위에 떠 있는 상자로 나타나며,

부활은 바로의 딸로 나타난다.

모세의 생애는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세례로 시작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숫자 "8"은 모세와 연관된다. 이는 그의 언약적 관계의 뿌리가 노아의 언약에서 비롯된 숫자 "8"에 있었고, 그의 사역이 "여덟째" 날의 할례 의식을 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바로 그 의식에서 시험을 받았고 실패했다. 모세의 생애는 세례로 시작되고, 40년 뒤에는 (이집트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이집트인으로서의 모세가 죽고 온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지점을 표시한다. 모세의 첫 40년의 시작과 끝은 세례로 표시된다. 첫 번째는 히브리에서 이집트로의 전환을, 마지막은 이집트에서 히브리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그로부터 다시 40년 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의 세례를 통해 이끌어 요단의 세례로 향해 가지만, 거기에는 끝내 이르지 못한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는 요단강에서의 세례의 때가 오기 직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주 너의 하나님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했고, 베드로도 이를 되풀이했다. 모세가 예표한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였고, 그분은 모세가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세례 때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세례는 고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복음서들은 요한이 벳아바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알려 주는데, 그곳은 건넌터이며 나룻터를 뜻한다.

홍해는 이집트의 반역을 상징하며, 이 맥락에서 모세의 예언적 증언이 진리임을 확증한다. 나일강에서 홍해(때로는 강이라 불리기도 함)를 거쳐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는 구원의 물에서 자신의 증언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끝맺으며, 그 물들마다 두 부류의 예배자가 드러난다.

모세의 첫 40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둘째 40년은 둘째 천사를, 셋째 40년은 셋째 천사를 나타낸다. 세 천사는 각자 고유한 예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 기별 모두가 첫째 기별 안에 나타나 있다. 우리는 다니엘서 1~3장과 관련하여 이 현상을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보여 왔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벨론의 식단을 먹기를 거절했고, 이어진 두 번째 곧 식이와 용모에 관한 시험에서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집행한 심판, 즉 세 번째 시험으로 이어졌다. 다니엘서 1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는데, 이는 다니엘이 두 번째 식이와 용모의 시험에서 그렇게 했고, 느부갓네살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세의 생애 첫 마흔 년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바로의 딸이 물에 떠 있는 상자를 보았을 때, 모세는 두 번째 시험, 곧 시각적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다. 그때 바로의 딸은 그가 죽을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 첫 마흔의 끝에도 심판이 임했다.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쳐야 했을 때였다.

두 번째 사십 년 동안,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는 애굽의 몰락으로 예표되었다. 그 몰락 가운데, 그 사십 년의 끝에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1844년의 한밤중 외침 동안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날 때와 같았다.

세 번째 사십 년은 사실상 전 회중에게 죽음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회중의 지도자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으로 끝난다.

화이트 자매는 우리의 일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주께서 곧 세상의 최악 때문에 세상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께서 종교 단체들을 벌하시려 하신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한 큰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업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7권, 950쪽.

모세의 첫 40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를 나타내고, 그의 두 번째 40년 기간은 둘째 천사이며, 세 번째 40년 기간은 셋째 천사이다. 우리의 '위대한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하는 것으로, 그 결과 모세의 세 상징이 1863년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일요법령에서 세 모세가 있게 된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는 가데스로 이끌었던 두 개의 40년 기간 모두를 증언하는 두 증인을 포함한다. 영감은 셋째는 첫째와 둘째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히므로, 모세 생애의 첫 40년도 1844년부터 1863년까지를 대표해야 한다. 1863년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권위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금송아지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구한다. 1863년과 일요일 법령의 시점에 모세가 셋 있으며, 그들 모두는 마흔 살이다.

모세의 세 시기마다 각각 물로 인한 구원이 있다; 갈대상자에 있던 모세는 홍해를 건넌 모세와 상응하고, 이는 다시 요단강에서의 두 차례와 상응한다: 나일강, 홍해, 그리고 요단강에서의 두 차례. 구원의 물은 이 세 시기 각각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모두 늦은 비의 시기에 구원의 물이 부어지는 그 기간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십 년의 끝에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 두 번째 사십 년의 끝에 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 첫 번째 사십 년의 끝에 그는 이집트 권세의 지팡이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첫째 기간의 끝에는 한 이집트 사람이 죽었고, 둘째 기간의 끝에는 이집트의 군대와 장자들과 지도부가 죽었다. 셋째 기간의 끝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론, 모세가 모두 죽었다. 이것들은 서로 평행하는 세 역사로서, 'line upon line'로 각각 1844년부터 1863년까지, 곧 세 번째 천사의 역사를 대표하며, 이는 다시 9/11에서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와 구원의 물이 부어지는 오순절의 시기를 대표한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반역 모두에 있었고, 그 가데스의 반역들은 각 기간에서 모두 정점에 해당한다. 그 둘은 모두 1863년을 대표하는데, 1863년은 또한 1844년의 알파로 시작하여 1863년에 이르는 셋째 천사의 기간의 정점이기도 하다. 초석으로 시작하여 머릿돌로 끝나는 그 돌의 놀라운 빛을 생각해 보면, 머릿돌이 예언적으로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순절 기간의 시작에 내린 몇 방울이 오순절 날의 정점에서의 총명한 부어짐으로 이어진 것이 이 진리를 보여 준다.

9/11에 뿌림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일요일법에서의 완전한 부어짐으로 끝난다. 이 진리는 첫 번째 알파 가데스 반역에 비해 두 번째이자 오메가 가데스에서의 모세의 죄가 더 큰 죄임을 밝힌다. 알파 반역은 온 민족의 죽음을 초래했고, 오메가 반역은 한 사람(모세)의 죽음을 초래했지만, 그 한 사람의 죄가 온 민족의 공동체적 죄보다 더 컸다. 죄를 짓는 자는 죽으며, 그 차원에서는 모세의 죄와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죄 사이에 구별이 없지만, 예언적으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친 것이 더 큰 죄였으니, 그것이 그 40년 기간의 완결점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오메가 가데스에서의 모세의 반역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보다 더 큰 죄였다. 모세는 예언적으로 1863년에 서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다. 모세는 또한 1863년에 서 있는데, 그곳에서는 옛 언약의 백성이 그들의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반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863은 일요일 법령과 일치하며,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도 마찬가지다. 가데스와 1863년, 그리고 일요일 법령과 일치하는 그 역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가데스는 1863년을 상징하고, 모세는 두 가데스 모두에 있다. 그러므로 둘 다 머릿돌인 두 성경적 증인에 근거하여, 가데스에서 끝나지 않는 세 번째 40년 기간 역시 1863년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확립한다. 그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세'는 반석을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1863년과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에는, '거룩하게 된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있다. 1863년에 모세는 슬기로운 처녀이자 미련한 처녀를 모두 대표한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나뉘는 두 큰 부류를 대표한다. 그들의 첫 두 대표자는 세상에서 처음 태어난 두 아이에게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152.

가데스에서 그리고 1863년에,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뉘는 두 큰 부류"를 대표한다. 모세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한 예이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되는 각 부류를 위해 사도 베드로의 생애 속에는 교훈이 있다. 제자 생활의 초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의 평가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기 전야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 밤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하였다.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아니하겠나이다.' 마가복음 14:27, 29.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기 신뢰가 그를 잘못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유혹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시험이 닥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152.

일요일 법령, 곧 1863년에, 베드로는 두 부류를 대표한다. 즉,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을 때, 그것은 14만 4천을 상징했다. 그 이해는 또한 영어 알파벳 글자 순서에 따른 숫자를 사용해 베드로의 이름의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곱함으로써도 상징된다. 같은 기법을 1863에 적용하면 144가 나온다.

1863과 일치하는 모세의 세 가지 상징 중 두 가지는, 세 번째 시기 또한 일치해야 함을 확증한다. 카데스의 두 선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세 번째 시기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을 동원하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이집트인 문제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 자매는 그녀의 남편들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점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와 비슷했다"고 말한다. 1863년에 모세는 제임스 화이트에 의해 대표되었다. 1863년에 제임스 화이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시한 '안식'의 기별을 거부한 반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모세는 바위를 두 번째로 쳤을 때는 어리석은 처녀이고,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을 위해 간구했을 때는 지혜로운 처녀이다.

우리는 이 글을, 모세가 1863년에 있고 금송아지 반역으로 대표되는 병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민수기 14장의 구절로 마무리하겠다.

그 본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을 '언제까지' 상대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이는 이사야가 6장에서 주님께 던진 것과 같은 질문이다. 민수기는 이 역사를, 이사야 6장 3절에서 천사들도 선포했듯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때에 위치시킨다. 9/11은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역사의 기초석이었고, 일요일법은 그 머릿돌이다. 민수기의 장면은 주께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옛 이스라엘을 제쳐 두시는, 곧 포도원의 노래 또는 비유의 예증 그 자체이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그 밤에 백성이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지극히 좋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여호와와 영광이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회막에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노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인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고,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며,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바,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얼굴을 맞대어 나타나셨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처럼 다 죽이신다면,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들은 민족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

이제 간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르시기를, "주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자비가 크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되, 유죄한 자를 결코 무죄하다 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녀들에게 삼사대까지 벌하시는 이라." 간구하오니,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말대로 내가 사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리라.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이제까지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은, 진실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노하게 한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지니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들어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갈 것이며, 그의 자손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다.) 내일 너희는 돌아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대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계수된 자들, 곧 너희 전체의 수대로 이십 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리라 하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던 너희 어린 자녀들은 내가 그리로 데려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던 그 땅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행을 담당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쇠하여 없어질 때까지니라.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대로,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사십 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언약을 어김을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슬러 함께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며, 거기서 죽을 것이다. 또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 가운데, 돌아와 그 땅을 비방하여 온 회중이 그를 원망하게 만든 자들, 곧 그 땅에 대해 악한 보고를 올린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민수기 14:1-38.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